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하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6일 오전 광주 YMCA에서 ‘경제침략 아베규탄 광주시국 회의’를 열고 아베를 규탄하며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김태규 기자

### 일 수출규제 대응책 주문



### 이용섭 “4차 산업 선도” 김영록 “소재·부품 육성”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으로 한·일간 무역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그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과 ‘소재·부품 육성’ 등을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용섭 시장은 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일본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럴 때일수록 분노와 규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냉정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며 “경제철학과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차선을 바꾸고 일본을 추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또 “광주가 지금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전략산업을 선도하고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 성공시키는 것이 바로 일본을 이기는 길이다”며 “인공지능 산업 육성이 진정한 일본을 뛰어넘는 담대한 길임을 명심하고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에 대비한 국가정책에 맞춰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고, 농수산물 수출을 다변화하는 등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은 단순한 경제 제한을 넘어 주권국가의 굴욕을 받겠다는 식의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도민이 안심하도록 일본을 넘어선 국력의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일본 경제보복은 농수산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검역 강화 조치 등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중국·대만·베트남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공공급식 판로 확보에도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성수·김영민 기자

## “국내 최대 5천억대 데이터센터 잡아라”

### 네이버 건립 공모...전남도 “스마트시티 구성지구 후보지로” 블루이코노미 연계 시너지 부각...9월 우선협상자 선정 주목 순천 가세 유치 역량 분산 우려...광역급 접촉창구 개설 필요

전남도가 5,000억원대 글로벌 IT기업 데이터센터 유치에 뛰어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전남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스마트 시티’ 시범지구로 보고한 해남 솔라시도 구성지구를 센터 건립 적정후보지로 내세운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결과에 따라 ‘블루이코노미’ 구체화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내 최대 IT기업인 네이버는 사업비 5,400억원을 들여 ‘제2 데이터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전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참여제안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예상 사업규모는 부지 면적 10만㎡·지상층 연면적 25만㎡ 이상이다. 이는 현재 강원도 춘천에서 가동되고 있는 ‘각’이란 이름의 ‘제1 데이터센터’

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다. 무엇보다 춘천 ‘제1 데이터센터’의 고용 창출인력 500명·8년간 지방소득세 수입액 325억원 등을 감안하면 제2 데이터센터 경제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집적도시로 이미지가 구축돼 관련 기업 이전과 연구기관 설립 등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센터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60개 지자체·58개 사업자 등 전국 118개 기관에서 136곳의 부지 참여의향을 제출했다.

전남도도 최근 ‘블루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에게 ‘블루시티’로 보고한 해남 솔라시도 구성지구를 후보지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도는 당초 네이버 측이 이번 사업을 경기 용인지역에 추진하려다 주민 민원으로 무산됐던 점을 고려해 유치 지원대책을 총출하게 수립했다.

우선 전력·통신·상수도 분야 인프라 공급을 추가로 지원하고, 친환경·재생에너지 사업과 협업을 통한 논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센터 건립을 위한 기후·환경적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남에 들어선 솔라시도 구성지구는 연평균 기온이 13도로 낮고 바람이 많아

시설방각에 용이하다는 평이다. 또한 내지 상태로 주민 민원 소지가 없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남에서는 순천시가 센터 유치에 가세해 자칫 내부경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비수도권 지역으로 관련 인프라 부족 등 각종 반대논리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순천시의 유치전 가세는 지역 내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것. 이로 인해 후보지 단일화와 광역단체 접촉 창구 개설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네이버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9월 안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순천시와는 별개로 구성지구에 센터가 들어서면 블루이코노미와 함께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 광주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급물살’

### 금주내 투자금 입금 완료...내주 주주협약·총회

이번 주 내에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금 입금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시는 6일 8월 중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

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6월 투자협약을 맺은 34개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이사회 결정 등 내부 절차를 마무리한 뒤, 투자금을 입금하고 있다.

시는 이번 주 내로 투자금 입금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주주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발기인 총회를 연대 이어 합작법인 명칭과 대표이사를 선정한 후 법인설립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명칭은 다수의 후보군을 선정해 시정자문위원회의 자문 받아 결정한다.

대표이사는 각계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들을 대상으로 검증작업을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시는 이달 중 합작법인을 출범시키고, 올해 말 자동차공장을 착공시켜 오는 2021년 완공과 함께 양산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금융기관 3곳, 기업 29곳 등이 합작법인에 2,300여억원을 투자한다. 광주시는 신설법인 자기자본금 2,300억원의 21%인 483억원을, 현대차는 19%인 437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해 마련한다.

/황애란 기자

두뇌스포츠 바둑문화의 활성화!

## 제8회 신안천일염배 학생바둑대회

▶ 접수기간: 2019년 7월 15일(월) ~ 8월 9일(금)

▶ 참가자격: 광주·전남 지역의 유치원·초·중·고 재학생

▶ 접수처: 광주광역시초등바둑연맹 ☎062)673-3780, 010-6745-4211

▶ 대회부문: 최강부(3단 이상), 유단자부, 1학년부, 2학년부, (16개부문) 중학년 중급부(3~4학년, 4급~9급), 중학년 고급부(3~4학년, 1급~3급), 고학년 중급부(5~6학년, 4급~9급), 고학년 고급부(5~6학년, 1급~3급), 여학생 저학년부(1~3학년), 여학생 고학년부(4~6학년), 유치부, 중·고등부, 꿈나무강자부(10급이하), 꿈나무부(10급~19급~20급), 셋별부(19급~20급~25급), 새싹부(25급~26급~30급)

● 일시 >> 2019년 8월 24일(토)  
● 장소 >> 광주문성중고등학교 체육관

주최 1004 신안군
주관 JM스포츠 \_ 광주광역시 초등바둑연맹
협조 (사)한국바둑교육협회 \_ 전라남도초등바둑연맹